

# “셔틀외교 완전 정착”… 韓, 동북아 ‘중재자’ 역할 부각

##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마무리

정상 간 신뢰 구축, 협력 토대 확립  
일본, 한국 핵심 외교 파트너 인정

韓 외교 위상, 동북아서 가치 증대  
중일 갈등 속 韓, 중재자 역할 강화  
조세이 탄광 유해발굴, 협력 첫 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향후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13일) 이 대통령이 묵은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데 이어 이날도 행사 장소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극진히 대접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현지 시간)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일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 차원에서 간소하게 이뤄졌음에도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환대를 받았다. 이는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할 창구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인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한국 대통령 앞에서 독도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이(長生) 탄광 수

물 조선인 유해 발굴 DNA 감식 지원을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다른 이슈에 비해 덜 부담스러운 이슈기도 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 것대로 협력하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은 ‘셔틀외교’를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에 2개월 만에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또 양 정상이 만난 것

은 셔틀외교가 궤도에 올랐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위상이 ‘중재자’로 격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7일 국빈 방중한 이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공항 도착시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중국 권력 서열 2~3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일본에서도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5번의 대화 기회가 있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 절제된 메시지를 전하며 ‘국의 중심 실용외교’를 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최대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 친분 및 신뢰 관계’를 꼽았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증시 거래시간 연장, 글로벌 자금유치 첫걸음”

거래소 “독점서 선택받는 시장 변화”  
코스피 최고치에도 불안, 리스크 산적  
NXT 성장 의식한 수수료·시간 경쟁

이르면 6월 말부터 오전 7시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이 잡나간(해외 투자) 개미(개인 투자)를, 해외 증시를 떠도는 글로벌 큰 손을 한국증시로 불러 모을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지나치게 저평가된 환율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별도로 ‘프리마켓’

(오전 7~8시)과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운데 오전 8~9시를 제외한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거래소는 “거래 시간연장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12시간 거래 추진은 그 일환”이라 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증시 개장을 오전 7시로 앞당기는 배경에 대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황을 포트폴리오에 조기애

반영하려는 국내외 투자자 수요를 조속히 충족시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장 구조도 일부 바뀔 전망이다.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현재 오후 4~8시에 운영되던 단일가 매매가 폐지되고,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비스켓·경쟁 대량 매매 시간은 기존 오전 8~9시에서 오전 7~9시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비스켓 매매도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거래소는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제도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한화, 경영 효율화·의사결정 구조개선 목표

### 투자 우선순위·자본 배분 최적화

(주)한화는 인적분할을 통해 테크·라이프 사업을 신설 지주사로 집결시키고 분산돼 있던 신사업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한다. 사업 성격이 다른 포트폴리오를 분리해 경영 판단과 자본 배분 과정에서 누적돼온 비효율을 해소하고 각 사업군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빙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은 투자 기간이 길고 정책·규제 변수의 영향이 큰 산업인 반면 테크·라이프 부문은 기술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따라 투자 시점과 의사결정 속도가 성과에 직결

되는 구조다. 한화는 이질적인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투자 우선 순위 혼선과 의사결정 지연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업별 현금흐름 구조, 투자 회수 기간, 리스크 요인, 계열사 간 자본 배분 방식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에서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전략 실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해 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이번 인적분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된다.

/원관희 기자 wkh@

**동해안 청정바다**

# 수산물의 명소 포항

청정바다 포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청정바다의 천혜자원을 간직한 동해안 대표 수산물 생산도시입니다.

**포항시**